

종신보험 연금전환특약은 보장성상품

“수수료 많아 연금보험보다 수령액·해지환급금 적어”… 내년 상반기 종신보험 유의사항 안내 의무화

A씨는 지난해 보험설계사를 통해 종신보험 연금전환특약 상품에 가입했다. 노후대비를 위해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싶었지만 설계사가 젊을 땐 사망 보장받고 늙은 후에는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해 그러려니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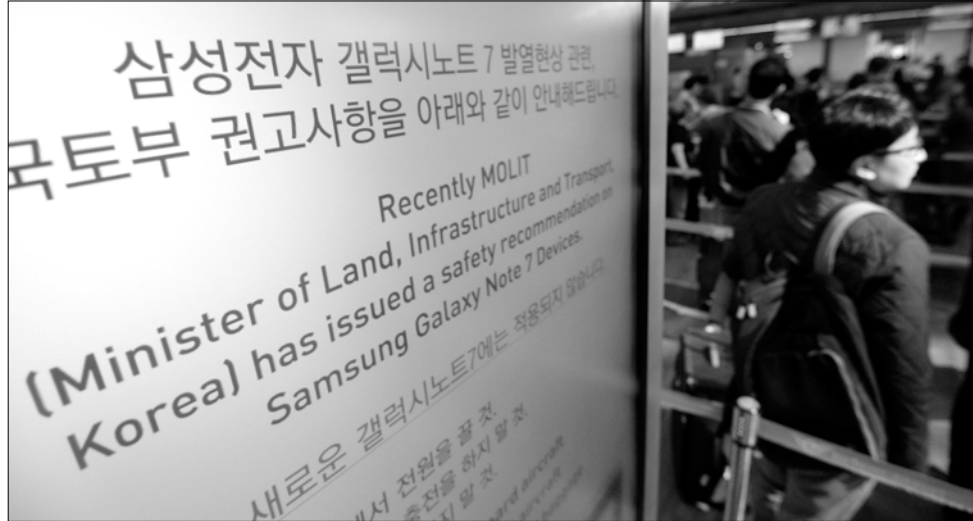
그러나 가입한지 1년 후 A씨는 경제사정으로 해당 보험을 해지했는데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었다. 알고보니 가입된 보험이 저축성인 연금보험이 아니라 보장성인 종신보험이었다.

A씨처럼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잘못 알고 가입하는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종신보험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험회사별로 상품설명서 등 각종 보험안내자료에도 유의사항 문구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 및 연금수령액·해지환급금 비교표 등을 명시토록 의무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위험을 보장하는 생명보험 상품이나 사망보험금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해지하고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연금전환특약)을 부가해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위험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 등 보험료 차감비용이 연금보험에 비해 높아 연금으로 전환시 처음부터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비해 수익성이 낮다.

예를 들어 1억원 종신보험 상품에 월 26만2000원을 20년 납입했다면 종신보험 연금특약은 연 263만원을 받



안내해드립니다 이동통신 3사(SK, KT, LG)가 삼성 갤럭시 노트7의 잇따른 발화사고로 판매를 중단한 11일 오후 인천공항 출구장에 붙여진 국토해양부의 권고사항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지만 연금보험은 344만원을 받는다. 1년간 24%가량 덜 받는 셈이다. 해지환급금도 연금보험보다 적다. 같은 조건으로 1년만에 해지하면 연금보험은 낸 보험료 대비 60%는 돌려받지만 종신보험은 환급금이 아예 없다. 5년 후 해지환급률은 91.9% 대 68.1%, 10년은 101% 대 78.5%다.

그러나 일부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수당을 더 받을 목적으로 연금전환특약을 강조해 연금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연금보험 대신 종신보험을 권유해 판매하거나 보험안내 자료에 종신보

험이 연금 및 저축기능까지 동시에 가능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올 들어 9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종신보험 상품관련 민원(4265건) 중 연금보험 또는 저축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했다는 민원이 2274건으로 53.3%를 차지했다.

내년부터 보험사는 전산시스템을 변경해 모든 종신보험상품 명칭 바로 아래에 ‘종신보험은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니다’는 문구를 명기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특성을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등 각종 보험안내자료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 및 연금수령액·해지환급금 비교표 등을 명시토록 의무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 정기 및 수시감리 등을 통해 보험안내자료 등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불법 포털 계정 만들어 판 일당 덜미

공유기 해킹해 스마트폰 1만여대 악성 앱 유포 뒤 생성 주기적 업데이트·와이파이 암호 설정으로 피해 예방해야

인터넷 공유기를 해킹해 스마트폰 1만여대에 악성 앱을 유포한 뒤 포털 사이트 계정을 만들어 판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과는 포털 계정을 부정생성한 중국인 왕모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적 중이며, 부정생성 계정을 구매한 마케팅 업체 대표 정모(33)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왕씨는 올 2월12일부터 6월15일까지 불특정 다수의 공유기를 해킹, 스마트폰 1만 3501대에 악성 앱을 감염시킨 뒤 포털사이트 계정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부정 생성된 포털계정을 구매한 뒤 인터넷 블로그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제공하는 바이럴 마케팅 용도로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왕씨는 사실 공유기 사용자들이 공장 출하 시 설정된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거나 보안에 취약함에도 업데이트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특정 스마트폰이 해킹된 공유기

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되면 웹 브라우저 업데이트 파일로 위장한 악성앱이 설치되도록 악성코드를 심었다. 앱이 설치되면 포털 가입 시 필요한 인증문자를 빼내어 실제 계정 주인 플래 포털 계정을 만드는 방식이었다.

왕씨가 부정 생성한 포털 계정을 인터넷 암시장에서 1개당 4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왕씨가 45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추정했다.

정씨 등은 왕씨가 만든 계정 147개를 포함해 5300여개 계정을 1600만원 정도에 구입, 4600여개 계정으로 제품홍보 글을 작성하거나 댓글 등록에 이용하는 등 마케팅 사업에 부정사용했다.

경찰은 부정 생성 시 접속한 기록을 토대로 왕씨를 특정, 국제 공조수사 중이다. 또 부정계정이 접속했던 사무실을 확인해 정씨 등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공유기 사용자들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최신 버전을 유지하고 관리자 아이디와 암호는 구매 초기 상태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와이파이 암호를 설정해 사용하면 다른 공유기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

2분기 모바일 간편결제·송금, 하루 254억 전기비 60.5% ↑

“결제 81만건·207억, 82.9%·53.3% ↑… 송금 12만건·47억, 88.3%·103.3% ↑”

핀테크(FinTech·금융+기술)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카카오페이, 삼성페이와 같은 모바일 간편결제·간편송금 서비스 이용률이 올 2분기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은행은 11일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효율적 감시와 대내·외 통계수요 대응을 위해 새로운 통계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앞으로 이 통계를 매분기 편제하고 있는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과 함께 공표할 계획이다.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지급카드기반 신종 전자지급서비스(간편결제)와 선불식 신종 전자지급서비스(간편송

금)로 구분된다. 간편결제는 카카오페이·삼성페이와 같이 지급카드 정보 등을 모바일 기기에 미리 저장해두고 거래시 비밀번호 입력, 단말기 접촉 등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선불식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모바일기기를 통해 계좌이체 등으로 충전한 선불금을 전화번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송금하는 비캐시·하나머니 등이 해당된다.

지난 6월말 현재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된 지급카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총 5625만매로, 3

월 말 대비 19.9% 늘었다. 2분기 중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실적은 92만건, 25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88.6%, 60.5% 증가했다.

이 중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된 카드 수는 2817만매, 하루 평균 이용실적은 81만건, 20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 대비 각각 82.9%, 53.3% 증가한 수치다.

제공업체는 모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전자금융업자로서 업종별로 보면 ICT 기반 업체의 등록카드수(1977만매) 및 등록고객수(2432만명)가 유통·제조업 기반 업체의 등록수(840만매·815만명)를 크게 웃돌았다.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을 위한 선불 전자지급수단 발매수는 2809만매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이용실적은 12만건, 47억원으로 전기 대비 각각 88.3%, 103.3% 늘어난 수준이다. 제공업체별로 보면 토스, 네이버페이 송금,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가 2114만매로 전체의 75.3% 차지했다.

한편 제공주체별로 보면 6월 말 기준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전자금융업자가 87.6%, 금융회사가 12.4%로 나타났다.

이용실적(금액기준)중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의 비중은 각각 99.6%, 0.4%로 전자금융업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수기준으로도 전자금융업자가 99.3%를 차지했다. /뉴스

내년 보험업계 성장률 2.2% 전망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역대 최저 “해외진출 등 모색할 때”

저금리와 저성장 여파로 보험업계의 보험료 수익 성장세가 2017년 역대 최저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1일 ‘2017년 보험산업의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보험업계의 내년 성장률이 2.2%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산업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4.4%, 5.5% 성장한 이후 올해 3.2%로 성장률이 떨어졌다.

보험료는 ▲2014년 187조2000억원 ▲2015년 197조5000억원 ▲2016년 203조7000억원 ▲2017년 208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생명보험사의 성장률은 올해 2.7%에서 2017년 1.7%로 하락한다. 종신보험과 유병자보험 등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9.2%에서 올해 7.7%로, 내년에는 4.7%로 하락할 전망이다.

저축성보험은 지난해 2.6% 성장한 뒤 올해 -2.0%, 2017년 1.2% 각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험사 역시 올해 3.8%에서 내년 2.9%로 성장세가 꺾일 전망이다. 보장성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증가율이 2016년 11.8%, 2017년 10.0%에 이를 전망이다. 자동차보험 역시 올해 11.0%, 내년 4.8%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반손해보험은 올해 3.0%, 내년 4.2%로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저금리 장기화, IFRS 2단계와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등으로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 손익 중심을 벗어나 장기적으로 경영을 재조정하고 해외 시장 확대 등의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뉴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